

보도	배포시	배포	2023.12.29.(금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신용감독국 신용감독2팀	책임자	국 장	김충진	(02-3145-8370)
		담당자	팀 장	조수경	(02-3145-8382)
	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	책임자	국 장	김형원	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변재은	(02-3145-8001)
	포용금융실 중소기업·자영업자 포용팀	책임자	국장대행	지행호	(02-3145-8412)
		담당자	팀 장	하도훈	(02-3145-8409)

금감원,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

- 태영건설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
-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」 운영
- 시장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한 금감원內 비상 대응체계 구축

1.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실시

- 12.29.(금), 금융감독원(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)은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
-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(581개사)*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.

* <붙임> '태영건설 협력업체 현황' 참조

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요

- (일시·장소) '23.12.29.(금) 10:00 ~ 11:00, 금융감독원 9층
- (금융권) 은행연합회, 생·손보험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·신협·농협·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및 6개 국내은행(KB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·기업) 여신 담당 부행장 등
- (금감원) 수석부원장, 은행·보험·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

□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업체가 존재하고,

○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권의 지원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.

①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,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

②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*가 높아(예:30% 이상)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

* 금융회사가 협력업체의 거래명세를 통해 매출처별 매출액 비중 파악

③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(Fast Track)*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

*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, B등급(일시적 유동성 부족)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, 이자감면, 신규 자금 등 지원

□ 한편, 이와 같은 협력업체 지원은 “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 방안(23.12.28. 보도)”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·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므로,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,

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의2(면책특례) ①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.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지원,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, 보증, 투자,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

○ 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.

2. 금감원 내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

□ 금융감독원은 기운영중인 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」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·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,

-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동 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민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」

- 전화상담 :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☎1332 누른 후 6번 선택)
- 방문상담 : 금융감독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
- 인터넷 : 포털 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 → 알아두면 유익한 사이트 → 중소기업·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→ 금융애로 →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

□ 아울러, 금융감독원은 건설사 및 부동산 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「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」 운영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12.28.(목)부터 「금융시장 상황 점검 T/F」를 구성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동 T/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
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, ② 건설산업 전반, ③ 금융회사 건전성, ④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1 개황

□ 태영건설은 581개* 협력업체와 5.8조원의 하도급 계약 체결

* 국토부가 최근 파악한 협력업체수로 이중 외부감사대상은 169개

- 對태영건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(외감업체 224억원)
-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對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.1%(외감업체 13.7%)
- 對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%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(28.9%)로 그중 151개사가 소규모 非외감업체에 해당

<對태영건설 하도급공사계약액 비중별 협력업체 수>

(단위 : 개)

對태영건설 계약액 비중	전체	10% 이하	10~30%	30% 이상
전체	581	251	162	168
외부감사대상	169	100	52	17
비외감	412	151	110	151

2 여신 현황

□ '23.10월말 협력업체*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.0조원

* 577개 기준(개인사업자 4사 제외) 은행 5.8조원 보험 0.4조원 금투 0.3조원 상호금융 0.06조원 등

-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(4.1조원) 제외시 2.9조원
- 對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% 이상인 협력업체(168개사)의 '23.10월말 금융권 여신은 0.6조원*으로, 전체 협력업체(7.0조원)의 8.8% 수준

* 은행 0.4조원, 보험 0.1조원, 상호금융 0.04조원 등